

토요일이면 어김없는 들썩임...국악과 통하다

전남도립국악단 '토요공연' 600회 돌파

지난해 무안 남악신도시에 들어선 국악 전용 공연장 '남도소리 울림터'(558석)에선 매주 토요일 흥겨운 국악 한마당이 펼쳐진다. 전남도가 238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남도소리 울림터'는 지자체가 처음 설립한 국악 전용극장이다.

올해 창단 30년을 맞는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유장영)이 진행하는 '토요공연-남도풍류' 가 어느덧 600회를 맞았다.

지난 2004년 11월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목요공연'으로 시작한 후 목포 시민문화회관(2006~2015년)을 거쳐 현재 남도소리울림터까지 12년을 이어온 긴 여정의 결과다. 한 단체가 외부 단체 초청 없이 매주 상설 공연을 진행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만큼 레퍼토리가 풍부해야 하고,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단원들이 많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986년 창단한 전남도립국악단은 창악부, 무용부, 기악부, 사물놀이부 등 모두 80여명으로 구성된 다양한 레퍼토리를 소화할 수 있는 게 최대 강점이다. 사실, 국악 공연은 "지루하다"는 선입견을 갖기 쉽다. 토요공연에서는 판소리, 국악관현악, 무용, 창극, 사물놀이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갈라 형식으로 선보여 흥미를 돋운다. 정적인 것, 동적인 것, 개인 공연, 단체 공연 등 무궁무진한 레퍼토리와 함께 전통 공연부터 현대적 느낌을 가미한 퓨전까지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처들이 눈에 띈다.

그밖에 단원들 역량을 결집한 토요특별기획 공연도

관객들에게 인기 있는 레퍼토리다. 어버이날에는 특별 공연 '장극 심경'을 공연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그린 '인동초처럼 살리라', '5인 5색 명인열전', 판페라 '이순신', 가족창극 '홍길동', '신춘음악회 봄마중, 봄마실', 신관창극 '놀보가 기가막혀', 시대창극 '흐름의 희망 일기' 등 다양한 작품이 관객을 만났다.

관객들의 호응도 높다. 지금까지 다녀간 관객은 9월 10일 현재 14만 6000명에 달한다. 36회 공연을 마친 올해는 7478명이 관람했으며 관객이 가장 많았던 때는 53회 공연을 진행한 2011년으로 모두 1만 7000여명이 다녀갔다.

토요공연은 유료 공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국악단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유료 공연을 유지했다. 초창기에는 1000원~3000원 수준이었고 지금은 5000원~1만원 정도를 받는다. 65세 이상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할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연 수입은 1억 5000만원이다.

토요공연에는 단골 관객들도 많다. 지역 관람객들도 많지만 '목포 대표 문화 상품'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목포를 방문하면 한번쯤 봐야 할 공연"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 하나투어, 흥익여행사 등 서울 지역 여행사와 연계해 꾸준한 관객들을 모으고 있다. 또 토요상설 공연의 갈라 프로그램을 DVD로 제작한 '남도풍류'를 판매하기도 한다.

토요공연을 관람한 후 직접 국악단을 초청하는 경우도 있다. 2012년 홍콩관광청 초청 홍콩 설맞이 페스티벌 공연 등이 대표적이다.

토요공연은 국악단의 작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도



'놀보가 기가 막혀'

큰 역할을 했다. 토요 공연 무대를 통해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작품 반응 살핀 후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쳐 작품을 완성하는 식이다.

또 올해부터는 22개 시군 홍보 영상을 공연 전에 상영, 아름다운 남도 곳곳을 외지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홍보 대사 역할도 하고 있다.

오는 17일 오후 5시에는 600회 특별 공연이 열린다. 창작 실내악연주 '나무가 있는 언덕', 국악 가요 '국밥집에서', '임진강', '채상설장구 놀이', '거문고 산조와 한량

무', 창극 '흥보 박타는 대목', 타악 퍼포먼스 '허수아비' 등을 만날 수 있다.

공연장 1층 로비에서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도 할 수 있으며 공연을 마친 후에는 전라남도립국악단 토요공연 출연자들과 포토타임도 갖는다. 토요 공연 관람료는 성인 1만원, 대학생 및 단체 7000원, 학생 5000원, 65세 이상 노인 및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다. 문의 061-285-69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통 창극서

퓨전 판페라까지

다양한 레퍼터리 강점

12년간 14만여명 관람

17일 600회 기념 공연

생명의 숨결 남기고 싶어...꽃꽂이 작품집 발간

김해란 금바다꽃예술중앙회 회장...4월 전시회 작품작 70여점 담아



"계절 따라 지고지 순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피고 지는 자연의 신비로움에 매혹돼 꽃꽂이라는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금바다꽃예술회 창립 작품전을 준비하면서 화훼장식 분야의 다양함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느꼈고 이를 오래도록 기념하기 위해 작품집을 내었습니다."

자연이 숨쉬는 친환경 화훼장식을 추구하는 금바다꽃예술중앙회 김해란 회장이 최근 꽃꽂이 작품집을 펴냈다. 지난 4월 개최한 창립기념 작품전에 출품했던 작품들의 흔적을 사진으로 고스란히 담아낸 것이다.

작품집에는 김 회장의 개인 작품 40여점을 비롯해 12명의 회원, (사)한국플라워디자인협회, 독일FDF플로리스트, (사)광주시 꽃예술작가협회, (사)한국플로리스트협회 광주지회 회원 작품, 제자들과 함께 한 공동작품 등 총 70여점이 담겨 있다. 김 회장의 플라워디자인은 모두 친환경



을 추구한다. 흙이나 돌, 나무들을 작품의 오브제로 활용해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다.

20년전 꽃꽂이 교실에 입문해 독일 FDF플로리스트 자격을 획득한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금바다꽃예술중앙회를 창립하고 현재 전남대학교와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내정원 전담 강사로 활

동하며 후배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김 회장은 "생물을 이용하는 꽃 장식은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사라지는 아쉬움이 많이 남기 때문에 작품집을 통해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며 "내년초 독일 FDF 마이스터 자격 취득 후 다시 한 번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밝혔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선인장밭 만화 캐릭터...인간과 자연의 공존

신선운 개인전

30일까지 휴랑갤러리

동물들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신선운 작가가 30일까지 휴랑갤러리(LH광주·전남본부 1층)에서 'Around World'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신 작가는 '자유롭게', '씩씩하게' 등 최근작들을 선보인다.

신씨 작품은 화려하다. 마치 불꽃놀이를 보는 듯 빨강, 파랑, 분홍색 선인장을 배경으로 그려넣었다. 부드럽게 가시를 표현하며 포근함을 전해준다. 때론 동물들, 때론 뽀로로 등 만화캐릭터를, 때론 비행기, 오토바이 등 탈 것을 소재로 사용하며 팝아트적인 표현이 특징이다.

작품 소재에 대한 생각은 명제에서 드러난다. '자유롭게'에서는 말이 자유롭게 뛰놀고 있으며, '즐겁다'에서는 즐거운 여행경험을 떠오르게 하는 고속버스가 등장한다.

이번 전시는 10월1일부터 31일까지 곡성 카페갤러리719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신씨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을 졸업



'자유롭게'

하고 개인전 '동물원 일상', '해피 월드' 등 5월 정선 릴레이아트' 등에 참여했다. 들을 여는 등 활발히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062-360-3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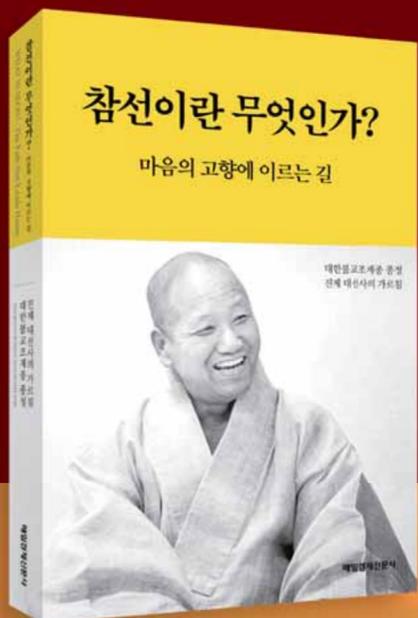
'국제여성미술교류전', 제3회 '100인'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연선 1층)

아프리카 스페셜
양근로전시회
- 400여점 전시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대선사가 한글과 영문으로 전하는 삶의 지혜와 참된 행복의 메시지

“사람들이 빈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요, 말이 여위면 털이 깊이로다.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하고자 한다면, 모든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를 밝히는 참선수행을 합시다.”

“이 책은 오늘 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소중한 양식을 부담 없이 얻을 양서라 아니 할 수 없다.”

-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진제대선사는 항국대선사로부터 부처님법을 인가받아 경허-해월-운봉-항국대선사로 전해 내려온 정통법맥을 이음, 석가여래부촉법 제79대법승, 현재)대한불교조계종 종정,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지음 | 진제 대선사 | 가격 | 16,000원 | 팔공총림 동화사 | 053)980-7903 | 해운정사 | 051)746-2256